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연구

박아영¹ · 김계하²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¹,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of Caregiver Trainees

Park, A Young¹ · Kim, Kye Ha²

¹Doctoral Student,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of 180 caregiver traine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five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s located in G city. All subjects were surveyed about the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by using the Training Effectiveness Scale and the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Scal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2.0 program. **Results:** The study subjects gained a training effectiveness score of 3.84 out of 5 points and a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score 3.40 out of 4 points. The training effectivenes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ubject's characteristics, intention to work as a caregiver, and hours of train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depending on their age and hours of training. The training effectiven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Conclu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level of educational training that will help improve caregiver trainees' care by positively changing their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Key Words: Education, Training, Behavior, Elderly, Caregive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여성성의 사회활동 증가, 보호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노인수발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05).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소규모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 또한 감소하고 있어 공적노인요양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년 7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주요어: 교육, 훈련, 행동, 노인, 요양보호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Kye Ha,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6, Fax: 82-62-230-6329, E-mail: kyeahkim@hanmail.net

- 본 논문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sun University.

투고일 2009년 11월 6일 / 수정일 2010년 3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26일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자가 각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게 한다.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종으로 기존의 노인복지법상의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hin & Byeon, 2008).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출범된 것이어서 급여, 시설, 인력 측면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의 경우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우도 일정시설과 최소의 교수인력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2009년 5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110개에 달하며, 여기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 수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50만 여명에 달한다(Kukinews, 2009). 그러나 교육기관이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강사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습 시설, 교과과정의 검정 없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향후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공급체계에도 적지 않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교육받은 시간과 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참여자들은 대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으로 교육훈련 유효성이 있다. 교육훈련 유효성이란 교육생이 가지는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고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되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훈련이 잘 실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조직이 이 교육훈련을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Bramly, 1991). 즉 교육생의 능력향상에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말하며, 그 유효성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생의 능력과 교육생이 속한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Kim (2002)은 교육훈련 유효성을 교육훈련의 실시로 인하여 교육생의 태도 및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육훈련

이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교육훈련의 실시로 인해 교육생의 태도 및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Kim, 2008).

교육훈련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차원에서의 특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져 온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직위, 학습동기, 성취 욕구, 자기효능감 등이 있으며, 조직차원의 특성에서는 조직의 내·외적 지원 및 보상, 훈련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도와 만족도, 훈련 담당자의 강의충실도와 자질만족도, 훈련기법의 적합도와 만족도, 훈련의 환경요인 등이 교육훈련 유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Kim, H. Y., 2007; Kim, Y. B., 2007).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의 충분한 정도와 교육내용의 적절성, 이해정도, 현장유용도 등이 전문 직업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Lee, 2007),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1998). 이처럼 교육훈련 유효성이 향후 교육생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 평가는 현재 요양보호사가 가지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 및 능력의 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이 교육훈련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교육훈련의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훈련 유효성의 제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케어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에 근거를 둔 서비스라야만 진정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Lim, 2002). 과거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 간호의 내용과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Courtney, Ting, & Walsh, 2000),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하에 노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노인 간호를 제공함에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은 가까운 장래에 노인을 일선에서 돌보게 되는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고 확인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된 교육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Huber, Reno와 Mcknny (1992)는 장기요양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후 간호사들의 지식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태도가 의미 있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ou (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해 올바르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노인 존중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과 관련된 수업을 받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chael et al., 2001). Ko와 Jung (2008)도 노인에 대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가치를 바람직하게 지각할 수 있는 전략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의 3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론과 실기 및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관련 수업에는 필수적으로 노인에 대한 특성이나 노화에 따른 변화 등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을 돌보게 될 대상자들이 노인을 좀 더 이해하고 노인에게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육훈련의 효과와 노인에 대한 행동 및 그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을 알아본다.
-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을 알아본다.
-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G시의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요양보호사 교육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의 표본 수 결정을 위한 Cohen (1988)의 공식에 따라 $\alpha = .05$, $power = .80$, 상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인 $.30$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가 88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종교, 과거 직업경험 유무,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 현재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에 관한 일반적 특성 8문항과 교육 과정 선택 동기,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출처, 교육과정 시 자신의 특성 고려유무, 향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 현재까지 받은 교육시간, 과거 노인관련 교육받은 경험유무 등의 교육관련 특성 6문항, 그리고 교육훈련 유효성 18문항, 노인에 대한 행동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교육훈련 유효성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arry (1997)가

개발하고 Kim (2008)이 수정·보완한 교육훈련 유효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사의 기술과 가치, 교육훈련 설계, 교육생의 능력과 인식 영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훈련 유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은 Won (2004)이 개발한 17문항의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평상시에 대상자들이 노인에게 각 문항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8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G시에 소재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5곳에서 1급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마다 연락하여 기관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는 직접 교실을 찾아가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에게 다시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중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한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교육생에게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 교

육훈련 유효성,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 및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일 지역의 교육기관 5곳에서 수행되었고 1급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행동 측정을 실제 관찰이 아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오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44.91세로 40대가 41.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0.5%, 30대 25.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96.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 63.3%, 대졸 이상이 22.8%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9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가 47.8%로 가장 많았다. 과거에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77.2%였으며 과거에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다.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8.9%였으며 91.1%는 노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절반(50.0%)이 자기발전과 지식, 경험을 얻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와 '주위의 권유로'가 13.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교육기관(요양보호사 교육원,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의 자체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주위 요양보호사의 권유'가 18.9%,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가 17.8%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자신의 특성(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n (%) or M±SD
Age (year)	44.91±7.82
20~29	5 (2.8)
30~39	45 (25.0)
40~49	75 (41.7)
≥50	55 (30.5)
Gender	
Male	6 (3.3)
Female	174 (96.7)
Level of education	
No education	1 (0.6)
Elementary school	3 (1.7)
Middle school	21 (11.7)
High school	114 (63.2)
≥ College	41 (22.8)
Marital status	
Married	169 (93.9)
Unmarried	11 (6.1)
Religion	
Catholic	25 (13.9)
Protestant	86 (47.8)
Buddhist	25 (13.9)
Others	2 (1.1)
None	42 (23.3)
Experience of job	
Yes	139 (77.2)
No	41 (22.8)
Living with elderly parents in past	
Grandparents	48 (26.7)
Parents-in law	51 (28.3)
Parents	17 (9.4)
None	60 (33.3)
Others	4 (2.3)
Living with elderly at present	
Yes	16 (8.9)
No	164 (91.1)

성, 흥미, 성격)을 고려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약간 고려하였다'가 57.8%로 가장 많았고,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가 15.6%,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14.4%였다. 대상자의 85%가 교육과정 이수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까지 받은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120시간 이상~160시간 미만인 57.2%, 40시간 이상~80시간 미만 31.1%, 16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노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77.2%였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Education (N=180)

Variables	n (%)
Motivation of participation	
For job	21 (11.7)
For self development	90 (50.0)
To solve the problems of community	24 (13.3)
Recommendation from others	24 (13.3)
Others	21 (11.7)
Source of information	
Mass media (TV, radio, news paper, etc)	32 (17.8)
Public relations of institutions	70 (38.9)
Recommendation of caregivers	34 (18.9)
Recommendation of family & relatives	29 (16.1)
Recommend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12 (6.6)
Others	3 (1.7)
Consideration of one's characteristics	
Never considered	26 (14.4)
Rarely considered	28 (15.6)
Moderate	11 (6.1)
A little considered	104 (57.8)
Very much considered	11 (6.1)
Intention to work as a caregiver	
Yes	153 (85.0)
No	27 (15.0)
The hours of training (hrs)	
≥40~<80	56 (31.1)
≥120~<160	103 (57.2)
≥160~<200	21 (11.7)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the elderly	
Yes	41 (22.8)
No	139 (77.2)

2.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는 평균 3.84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Table 3).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강사기술의 가치'에 대한 점수가 평균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강사들은 전문지식과 이론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었다"가 평균 4.31점, "강사는 요양보호사 활동과 관련된 용어나 사례를 사용했다"가 평균 4.19점이었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강사들은 지루하지 않고 흥미 있게 교육을 진행했다"가 평균 3.96점이었었다.

'교육훈련 설계'에 관한 점수는 평균 4.04점으로 "교육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다" 평균 4.09점이었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교육훈련의 교육자료(교재, 책자)는 충분했다"로 평균 3.86점이었다.

세 하위요인 중 '교육생의 능력과 인식'이 평균 3.30점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 중에서 "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요양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배웠었다"가 평균 2.66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행동의 평균도 3.40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Table 3). 각 문항별로 볼 때 점수가 높아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인 문항은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다"로 4점 만점에 평균 점수 3.77점이었고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평균 3.72점, "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가 평균 3.69점, "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가 평균 3.64점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로 평균 3.01점이었으며, 다음은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로 평균 3.02점이었다.

Table 3.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Variables	M±SD	Range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3.84±0.51	2.39~5.00
Behavior toward the elderly	3.40±0.34	2.00~4.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노인에 대한 행동은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370, p=.020$). 사후 검정 결과 5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30대 대상자들보다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에서는 교육과정

선택 시 자신의 특성 고려 정도($F=4.033, p=.004$),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t=2.403, p=.017$), 현재까지 받은 교육 시간($F=5.947,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 선택 시 자신의 특성을 '매우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았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활동할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교육훈련 유효성이 높았으며, 현재까지 교육받은 시간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은 160~200시간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40~80시간과 120~160시간 교육받은 대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노인에 대한 행동 역시 현재까지 교육받은 시간($F=3.194, p=.04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40~80시간 미만 교육받은 대상자가 160~200시간 미만 교육받은 대상자보다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5.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약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75, p=.022$). 즉, 교육훈련 유효성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이었다(Table 6).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 수준은 평균 3.84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점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울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했던 Lee (2009)의 연구결과 3.86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요양보호사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자까지 포함시켜 조사하였던 Kim (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4.02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Song (2009)의 연구에서는 49.5% 정도만이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71.3%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Table 4.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939	.035		3,370	.020
20~29	4.00±0.60			3.52±0.16		(a<b)
30~39	3.68±0.45			3.31±0.28 ^a		
40~49	3.94±0.46			3.40±0.37		
≥50	3.90±0.55			3.51±0.28 ^b		
Gender		0,637	.525		0,727	.469
Male	4.00±0.28			3.52±0.25		
Female	3.86±0.50			3.41±0.33		
Level of Education		0,614	.607		0,838	.475
No education	4.10±0.44			3.47±0.51		
Elementary school	3.85±0.54			3.52±0.26		
Middle school	3.88±0.46			3.40±0.35		
High school	3.79±0.57			3.40±0.28		
≥College						
Marital status		0,156	.876		-1,112	.268
Married	3.86±0.49			3.41±0.33		
Unmarried	3.84±0.63			3.52±0.24		
Religion		0,113	.952		0,307	.820
Catholic	3.89±0.46			3.40±0.30		
Protestant	3.87±0.53			3.42±0.33		
Buddhist	3.81±0.59			3.46±0.28		
Others	3.85±0.39			3.39±0.35		
None						
Experience of job		-0,002	.998		-1,329	.185
Yes	3.86±0.51			3.38±0.35		
No	3.86±0.44			3.47±0.30		
Living with elderly parents in past		1,031	.393		2,130	.079
Grandparents	3.86±0.50			3.37±0.39		
Parents-in law	3.84±0.46			3.43±0.29		
Parents	4.10±0.53			3.24±0.44		
None	3.82±0.52			4.10±0.53		
Others	3.92±0.23			3.47±0.28		
Living with elderly at present		1,767	.079		0,028	.978
Yes	4.08±0.33			3.42±0.27		
No	3.84±0.50			3.41±0.33		

요양보호사들의 교육훈련 유효성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점검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교육훈련 유효성에 대한 각 하위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사의 기술과 가치영역과 교육훈련 설계영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 확인되었다. 특히 "강사들은 전문지식과 이론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었다"와 "강사는 요양보호사 활동과 관련된 용어나 사례를 사용했다" 등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따

라 원활하게 진행되었다"와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다" 등의 문항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교육생의 능력과 인식영역이 3.3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요양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배웠었다"가 평균 2.66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결과는 Kim (2009)과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Kim (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본 결과를 근거로 볼 때, 현재 교육기관의 강사나 교육과정 등의 면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소에 본인 스스로가 요양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찾고 활용하

Table 5.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M±SD	t or F	p	M±SD	t or F	p
Motivation of participation		1.430	.226		0.834	.527
For job	3.98±0.40			3.37±0.24		
For self development	3.87±0.52			3.41±0.33		
To solve the problems of community	3.97±0.47			3.48±0.32		
Recommendation from others	3.78±0.50			3.49±0.36		
Others	3.69±0.48			3.32±0.40		
Source of information		0.816	.517		0.561	.730
Mass media (TV, radio, news paper, etc)	3.83±0.55			3.37±0.25		
Public relations of institutions	3.93±0.48			3.42±0.33		
Recommendation of caregivers	3.81±0.52			3.42±0.38		
Recommendation of family & relatives	3.88±0.41			3.36±0.38		
Recommend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3.69±0.52			3.52±0.32		
Others						
Consideration of one's characteristics		4.033	.004		1.759	.139
Never considered	3.98±0.63		(a<b)	3.38±0.30		
Rarely considered	3.85±0.42			3.35±0.35		
Moderate	3.44±0.52 ^a			3.43±0.41		
A little considered	3.84±0.45			3.38±0.32		
Very much considered	4.23±0.40 ^b			4.62±0.40		
Intention to work as a caregiver		2.403	.017		1.711	.089
Yes	3.90±0.49			3.43±0.33		
No	3.65±0.47			3.31±0.39		
The hours of training (hrs)		5.947	.003		3.194	.043
≥40~<80	3.96±0.50 ^a		(a>b)	3.46±0.31a		(a>b)
≥120~<160	3.88±0.46 ^a			3.40±0.30		
≥160~<200	3.52±0.52 ^b			3.25±0.53b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the elderly		1.132	.263		1.091	.277
Yes	3.95±0.58			3.46±0.36		
No	3.83±0.47			3.39±0.33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Education training effectiveness
	r (p)
Behavior toward the elderly	.175 (.022)

는 것, 또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간호사들의 경우 최종학력이 최소한 전문대 졸업 이상인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86%가 고졸 이상이지만 14% 정도는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음을 보여준다고 사료되므로 학력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일부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3.40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들이 평상시에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Ha (200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3.40과 일치하는 것이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결과 3.32와 거의 유사하였다.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은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들이 향후에도 계속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는 것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행동을 문항별로 볼 때는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했다" 등에 대해 가장 많이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생

중에서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2009)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와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였는데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ang (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체적인 점수 결과로 볼 때는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은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Jung (2009)는 요양보호사 교육전후의 요양보호사 지식 수준을 비교하여 교육 후에 지식이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의사소통법이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본 연구결과에서 낮게 나타난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후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에 대한 행동은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5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30대 대상자들보다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Ha (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50대가 60대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결과(Mosher-Ashley & Ball, 1999)도 있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상반된 연구결과(Kim & Kang, 2003)도 있었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들(Kim, 2004; Kim, 2008; Lee, 2009; You, 2007)에서는 성별, 근무기간, 최종학력, 노인과의 거주경험 등에 따라서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비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에서는 교육과정 선택 시 자신의 특성을 매우 고려한 집단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았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와 현재까지 교육받은 시간이 적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대, 총 교육받은 시간, 교육원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Lee, 2009), 과거 교육경험(유무, 형태, 횟수, 최종교육시

기), 교육원 특성(교육원 형태, 원장 자격사항, 기관의 교육 경험기간)에 따라라도 교육유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Kim, 2008)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들은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목적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Kim, Y. B. (2007)는 개인분석을 통해 조직 내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프로그램 설계 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분석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을 등록할 때 무조건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비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원하였는지를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라도 선별, 분석하여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유효성이 높았는데 이는 Youn, Kang과 Kim (2002)이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평가의 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학습동기는 교육훈련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을 경우 그 동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Kim, H. Y., 2007). 교육을 하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장차 담당할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것이므로 향후에 요양보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교육에 대해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훈련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학습동기가 교육훈련 유효성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고(Kim, 1997; Kim, H. Y., 2007), 개인목표 달성의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Y. B., 2007). 따라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가 없는 대상자를 처음부터 교육생으로 받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 결과를 고려하여 초기에 대상자들의 학습동기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받은 시간이 적을수록 교육훈련 유효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만으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각 기관에서는 자

체 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중간 점검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노인에 대한 행동은 40~80시간 미만 교육받은 대상자가 160~200시간 미만 교육받은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별로 보면 교육을 적게 받은 대상자들일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교육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위에 대한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였던 Song과 Kim (2008)의 결과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관련 교육을 많이 받으면 지식이 증가하고 이는 태도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Kang,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 현황에 대한 교육 전반의 여러 사항을 재검토해 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노인에 대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표본수를 좀 더 확대시키고, 운영 기관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이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이 약하지만 유의한 정상관계를 나타내어 교육훈련 유효성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요양보호 교육과정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이 교육 후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Kim (2009)과 노인보전에 대한 수강경험이 노인관련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Kang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과거 선행연구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본 연구가 거의 없어 좀 더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이유가 교육훈련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으므로(Youn et al., 2002)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유효성을 높여주면 노인에 대한 행동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요양보호사 교육개발 시 교육훈련 유효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요양보호사 육성과 더불어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유효성이 노인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지식의 증가와 함께 노인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반복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는 중간 수준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노인에 대한 행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은 교육과정 선택 시 자신의 특성 고려 정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의사, 현재까지 받은 교육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행동 역시 현재까지 교육받은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편의표출의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에 좀 더 개선된 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해서 이론교육 뿐 아니라 실기, 실습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측정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은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ramly, P. (1991). *Evaluating training effectiveness-training theory into practices*.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iates.
- Courtney, M., Ting, S., & Walsh, A.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6(2), 62-69.
- Ha, S. H. (2007). *A study on knowledge of elderly health car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home help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Huber, M., Reno, B., & Mcknny, J. (1992). Long-term care personnel assess their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older adul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1114-1121.
- Jung, J. H. (2009). *Comparison of knowledge on nursing care before and after training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Kang, S. H. (2007). *The influence of knowledge to and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on practice related to them in some nurses employed in general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D. Y.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ome helper training effectiveness on home helper'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Y.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training of cooperative association -Focusing 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25(2), 37-63.
- Kim, J. Y. (2004).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Y. (2009). *The effects of elderly care program on the married women's knowledge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Kim, S. J. (2008). *The factors affecting the belief in public service and passion of trainee in long-term care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B. (2007). Th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raise the effectiveness for university hospital employe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Hospital Administration*, 12(4), 96-118.
- Kim, J. H., & Kang, Y. G. (2003). The effect of demographic differences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aged people. *Journal of Social Welfare*, 24, 37-55.
- Ko, E. K., & Jung, M. S. (2008). Children's attitude and intention of behavior towards elderly -Focused on children's perceived value-. *Journal of Contents*, 8(11), 323-337.
- Kukinews (2009, October 5). *Qualification of caregivers*. Retrieved October 22, 2009, from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42982&cp=nv>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March 3). *The report on daily living status & social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Retrieved April 4, 2008, from <http://www.kihasa.re.kr/html/jsp/>
- Lee, C. H.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care worker'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Lee, H. D. (2009). *A study on enhancement of the nursing home worker'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Lee, Y. K. (1998).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the home hel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chtenstein, M. J., Pruski, L. A., Marshall, C. E., Blalock, C. L., Murphy, D. L., Plaetke, R., & Lee, S. (2001). The positively aging teaching materials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imag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41(3), 322-332.
- Lim, Y. S. (2002).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Mosher-Ashley, P. A., & Ball, P. (1999).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 elderly person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mselves at age 75. *Educational Gerontology*, 25, 89-102.
- Parry, S. B. (1997). *Evaluation the impact of training: A collection of tools and techniques*. Alexandria, VA: ASTD press.
- Shin, K. R., & Byeon, Y. S. (2008). Development of education & raining programs for senile long-term care managers (the 2nd. grad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2), 251-268.
- Song, S. H. (2009). *Studies to secure professionalism of the senior care workers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Song, M. S., & Kim, H. S. (2008). Effects of diabetes education and telephone counseling on depression in patients with diabe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3), 481-488.
- Won, Y. H. (2004). *The development of behavior scale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nuscript.
- You, Y. S. (2007). *A study on behavior and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Youn, J. R., Kang, S. B., & Kim, H. C.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training participants on their training. *DAEHAN Journal of Business*, 33, 3-44.